

#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박차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공동 작품 결정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에 85억원 투입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서

영광군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설계공모 작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출품된 2개의 설계공모안 중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주)건축사사무소 플랜이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이 공모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이번 당선작은 주변 진출입이 용이하고 공공 건축물로서의 다양성과 개방감이 돋보인 점과 청년창업시설과 육아지원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잘 배치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신·출산·양육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에 85억원을(건축비 79억원) 투입해 연면적 2,989㎡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신안군, 금년도 태풍 어선피해 제로화 성공

신안군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 재산 보호를 위해 어촌현실에 맞는 재해대비 인양장비와 어업용 포크레인, 고정식 인양기 등을 전국 최초로 입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태풍 어선피해 제로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9월 한달 간 제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연속된 태풍이 신안지역을 관통하면서 어업활동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착장 및 물양장 등에 카고 크레인, 포크레인을 입차하여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결박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 어선 인양장비 입차사업'을 추진하였고, 포크레인 렌탈(임차)사업을 통한 2,000여척의 소형어선을 육지인양 및 안전지대로 이동 결박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포크레인 렌탈(임차)사업은 평소에는 수산물 인양작업 및 해안가에 밀려드는 쓰레기 제거작업 등 환경정화 활동에 사용되고 태풍 등 재해시에는 응급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어 1석 3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목포시, 세계 향한 글로벌 홍보에 박차 한국관광공사와 연계 '아이쿱(IYKoong) 댄스 챌린지' 성료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목포시가 세계를 향한 글로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일 목포 삼학도 요트마리나에서 '아이쿱 댄스 챌린지'가 개최돼 목포를 알리는 감각적인 플래시몹 영상이 전세계로 상영되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아이쿱 댄스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목포시를 비롯한 5개 관광거점도시 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Feel the Rhythm of Korea' 홍보영상의 커버댄스 챌린지와 각 관광거점도시 홍보 영상이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Imagine Your Korea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목포시를 비롯한 5개 관광거점도시를 릴레이 생방송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으로 많이 알려진 이날 '엠비규어스 컴퍼니'가 스튜디오에서 커버댄스 챌린지의 우승자를 선발하며 잊지, 우주 소녀, 전소미, 오마이걸의 축하무대도

이어졌다.

또한 5대 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투어를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목포는 이번 방송에 소개된 커버댄스 영상을 통해 목포의 정체성과 숨은 관광지를 스토리화했으며, 생방송 라이브 플래시몹에는 40명이 동시에 참여해 예방목포, 서남권 해양레저관광의 대표적인 관광 목적을 컨셉으로 흥이 넘치는 공연을 펼치며 호평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역라인을 설치하고 출연진 외 관람객들의 입장을 부득이 제한하며 마스크착용 및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다.

김명준 관광과장은 "이번 비대면 온라인 '아이쿱 댄스 챌린지 콘서트'를 통해서 낭만항구 목포가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렵지만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목포시를 많이 찾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무안군, 전입 지원금 확대로 인구 늘리기

무안군은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기로 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무안에 전입한 관내 대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반전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상품권 2만원과 쓰레기봉투 20개가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품권 5만원과 봉투 40개가 지원된다. 기업체 임직원과 군 장병의 경우 상품권 지원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마다 10만원씩 총 4년간 80만원을 지원받는다.

## 함평군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탄력

### 보훈처 예산 9천만원 확보...총사업비 3억원 투입



지난해 4·8만세운동 재연행사 모습

함평군이 추진하는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이 국비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함평군은 7일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비로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설 건립예산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확산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해보면 문장 3·1만세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군은 확보한 국비를 통해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하고 애국지사 24인의 위패 보관과 별도로 마련될 전시·교육공간을 통해 지역 내 애국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을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이자 이를 기억해야 할 우리 후손들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군은 보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에 적극 보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매년 4월 8일마다 주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미4·8만세운동 추모식과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함평=김평준기자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 신청하세요"

### 용자 상환기간 연장...용자액 5억 → 10억원으로 200% 확대

영암군은 지난 12월 2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추진한 농업발전기금 지원조례가 영암군의회에서 통과되어 곧바로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수혜자를 찾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 신청 안내에 들어갔다.

내년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사업은 용자액 총 10억원 규모로 개인은 5천만원, 법인 등은 1억원까지

로 예상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금년은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에 종사한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한해를 보냈는데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해 용자사업을 안내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